

## 구급의료의 쟁점 (爭點)



문국진/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구급의료란 방치하면 생명의 위험이 초래될 각종질병이나 상해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료로서 근래에 와서는 구급의료를 둘러싸고 야기되는 문제가 하나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일로 번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 구급의료를 둘러 싸고있는 의환간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어떤 환자의 경우는 구급의료를 통하여 의료의 고마움을 절실히 느끼는가 하면 어떤 환자의 경우는 구급의료를 받지

못해 또는 부적절한 구급의료로 평생동안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이도 있다.

이렇듯 응급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의료와 사회가 교류되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응급실 인상이 병원을 대표하여 환자 측에게 반영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또 환자와 의료인들 간에 마찰이 가장 많은 지대가 바로 응급실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하나의 생명을 놓고 제한된 시간내에 취하여야지는 행위에 대한

느낌과 파란 등의 수용양식이 교육의 정도, 습관, 살아온 인생관, 감정 처리방식 등에 따라 많은 차가 있어 때로는 사실과 전혀 다른 면에서 오해되어 마찰을 일으키고 급기야는 법적인 문제로 파급되게 된다.

구급의료를 둘러싸고 야기되기 쉬운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의료인과 환자가 잘못인식되어 있거나 오해하기 쉬운점을 각자가 본연의 입장에서 이런점을 이해함으로써 마찰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믿어지는 문제들에 대하여 기술 하기로 한다.

## 1. 치료의 지연

구급의료에 있어서 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강조되는 사항이다.

즉 구급의료의 대상자는 그 장소의 그 시간이라는 때를 놓치면 영영 생명을 구제할 수 없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평생 도리킬 수 없는 불구의 몸이 되는 위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한 병원에서는 의사를 응급실에 상주시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의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또는 야간이라 원내속 소에가 응급실에는 간호사 혼자 있을 때 환자가 와 즉시 치료에 응할 수 없어 치료가 지연되어 환자에게 좋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분쟁의 씨가 된다.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환자나 환자가족이 의료인을 의지하려는 마음과 기대는 무엇과도 비할 수 없이 크다 하겠다.

이렇게 의지하려는 기대가 의사가 없거나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의사에게 전하여 지지 않는 경우, 실망은 분노로 변하고 급기야는 분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문제이다. 즉 병원이란 곳은 환자를 치료하려고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병원은 응급실을 위한 전달체계를 이중 삼중으로 수립하여 구급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즉시 이에 응할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고 이에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 2. 치료의 확인과 과잉장악

구급환자에 대한 치료가 끝나 치료가 효과적이라 판단되면 담당하였던 의사는 자리를 뜨게 된다.

그 이유는 처치가 잘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며 또 다른 환자가 의사의 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호사는 계속 환자를 돌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및 처치의 확인은 간호사가 하게 되는 셈이다.

때로는 응급처치가 효과적이었고 또 시행한 의사가 매우 유능한 의사에 의한 처치였다는 것을 믿고 치료의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응급처리를 한 의사의 경우 효과적이었던 환자도 상태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확인하는 것을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 문제가 제기된다.

또 때로는 자기병원으로서는 최선을 다 한다 할지라도 시설 및 전문분야의 차

등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설비와 인적구성이 되어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만일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를 이송하지 않고 계속 머물게 하는 경우에는 과잉장악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분쟁의 씨가 되기도 한다.

### 3. 증상에 대한 오해 해소

구급의료에 있어서 가끔 문제가 되게 하는 것은 야기된 증상, 특히 아픔(동통)에 대한 문제이다. 의료인들은 아픔은 병의 경과중 피할 수 없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환자나 환자가족의 경우는 이를 모르기 때문에 동통을 호소하여 의사를 불러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간호사가 묵살하고 의사에게 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무조건 환자측의 요구를 묵살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증상은 병의 경

과 중에 피할 수 없이 야기되는 것이라는 것을 환자측에게 충분히 납득시켜야 하며 이것을 하지 않거나 또는 소홀히 하면 그 응급실의 치료가 제아무리 잘되었다 할지라도 환자측의 오해는 좀처럼 풀리지 않으며 특히 치료결과가 좋지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이 화근이 되는 것을 여러 의료분쟁의 사례에서 보았다.

또 이런것이 계기가 되어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 사건을 취급하는 수사관과 검찰 그리고 법관들 마저 환자측의 호소에 동조하게 되어 결국은 불리한 판정을 받게되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환자가 어떤 증상을 호소하여 오는 경우 즉시 대응하여야 하며 그것이 환자의 생명이나 예후에는 하등 관계없겠다고 판단되는 증상의 경우는 이를 설명하여 납득이 가게끔 하여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여 문제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난 후에는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

## 해외단신

### 국제항결핵 및 폐질환연맹 동부지역 회의

국제항결핵 및 폐질환연맹 동부지역(International Union Against TB and Lung Disease) 제17차 회의가 1993년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다.

### 담배와 건강 아시아 태평양회의

제3차 담배와 건강에 관한 아시아 태평양회의(The 3rd Asia-Pacific Conference on Tobacco or Health)가 일본 오미야에서 1993년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개최된다.